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회의 일환으로 각국의 대사님들을 모시고 우정을 나누며, 평화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사님과 외교관 여러분, 그리고 우리정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통역)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사용한 약 50만 년 전부터 전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순된 일이지만 이에 더하여 현대의 첨단 과학은 전쟁의 수단과 양상을 급속도로 다양화시켰습니다. 세계의 과제가 되어버린 핵무기와 정보체계를 수단으로 벌이는 사이버테러 등이 그렇습니다.

생명 존중사상과 인류가 취해야 하는 근원적인 가치에 눈을 뜬 인류는 전쟁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궁극적인 가르침에서 볼 때 전쟁을 긍정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영어통역)

오늘 이 자리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한국전쟁에 희생한 모든 국가와 군인들에게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행복한 지구촌을 건설하자는 의미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한반도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 고령에 접어든 이산가족들은 해

어진 가족을 그리며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치유에서라도 여러 국가의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어통역)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과 중국군 그리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세계일화(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니 다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통역)

오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뜻 깊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와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회복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덕화와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자리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통역)

불기2557(2013)년 5월 8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보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